

## “6·3 대선 앞두고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 돌입”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본부 등 단체들,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선언  
제21대 대선, 종북·좌파와 전면전 될 것  
절체절명 위기서 대한민국 살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기는 기도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가 긴급 기도운동에 돌입한다.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이상 운영위원장 박원영 목사) 등 단체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의 국가비상긴급기도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윤상현·조배숙 의원과 함께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긴급 기도 선언문’에서 “우리는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비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이번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수십 년을 국민들의 미래를 볼모로 쌓은 이념의 토대 위에 국가의 최대 권력으로 성장한 종북좌파와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의 앞날은 더 이상 돌아갈 곳조차 없을 만큼 절박한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역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패망의 비참한 단초가 아닌, 국가재건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과 1200만 성도들께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긴급 기도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먼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6월 3일까지 대한민국 수호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비상 기도 기간으로 선포한다”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살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국가를 위한 작정기도회’(6/3), ‘세이레 21일 기도회’(5/14~6/3), ‘7일 기적기도회’(5/28~6/3)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이 나라의 위기와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성도들

에게 널리 알리시어 선거 기간 동안 금식과 회개로 기도해 총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반성경적 악법을 옹호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앞장서며 국가의 질서와 안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넘볼 수 없도록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도단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본부는 국가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성도 국회의원 청년 애국열사 등의 기도단을 꾸려 남은 대선까지 전진코자 한다”며 “이들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선언 33인이 되어 순교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 나라의 무너진 상식

과 법치, 이념에 굴복한 처참한 정의의 실체를 목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하나님께서 거짓과 죄악으로 돌진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회초리였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를 결코 외면치 않고, 그 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기인 기도로 이번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지리”(대하 7:14)라는 말씀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렘 29:12)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도하는 우리가 이긴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애국 국민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 예장 합동,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최한다

첫 ‘부부 동반’ 도입으로 규모 확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김중혁 목사, 이하 예장 합동)가 주최하는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로마서 1:16)를 주제로, 영적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집회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 구성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단독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부부 동반 참석을 권장해 참여 규모가 약 3500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총회가 보다 넓은 영성 회복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예장합동의 목사·장로 기도회 모습. ©노형구 기자

도입한 변화로, 기도회에 가족적인 분위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도회는 사흘간 예배와 강의, 공동기도 등 다양한 순서로 채워진다. 개회예배 설교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맡으며, 폐회예배는 새대문교회 장봉생 목

사가 인도한다. 제직집회에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 원주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목사가 강단에 선다. 이 외에도 총 7회의 전제강의와 12개의 선택형 트랙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행사 첫날에는 예년과 달리 부대행사로 총회장상 시상식이 예배에 앞서 진행된다. 올해 수상자는 무안공화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한 무안노회를 비롯해 총회의 연합과 섬김을 보여준 단체들이 선정됐다. 노회 대표들이 직접 총회에서 제작한 노회기를 들고 임장하며, 신임 노회장들에게는 축하패도 수여된다.  
올해 기도회에서는 참석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총 5000만 원 규모의 경품 추첨이 포함되며, 경차 2대를 비롯해 다양한 선물이 준비돼 있다. 다만, 경품 추첨은 예배가 아닌 강의 이후에 진행되며, 행사 운영진은 본래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철을 맞아 행사 현장이 총회 임원 후보들의 선거운동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최 측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예배당 앞자리를 배정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기도회를 신앙적으로 충실히 마무리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 “동성애자 성직 안수 및 결혼 주례 인정하지 않아”

해외한인장로회, 7~8일 연동교회서 열린 총회에서 결의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날 ‘미국 장로교(PCUSA)와의 협약 관계에 대한 총회 청원서가 보고됐다.’  
이는 서북남노회와 로스앤젤레스 노회에서 최근 PCUSA가 지역 교회들이 LGBTQIA+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PCUSA와 협약 관계인 KPCA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현의안이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성 요청 ▲우리의 입장 재확인 ▲신학적 틀 확장 ▲KPCA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에 대한 지침 제공이다.  
이에 대해 KPCA 제49회 총회에선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성 요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총회 주요 관계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하고, 나머지 사항은 ‘동성애 관련 목회적 도움 위원회(2024-2025)’에서 작성한 ‘성소수자(동성애) 관련 목회 지침서’로 갈음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스러운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성경적 교훈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성직 안수와 성소수자 결혼 주례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향존직의 시무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개정하는 내용의 현의안은 부결됐다.  
노형구 기자

## 미얀마 강진 피해 선교사들 위해 아시안미션, 긴급 지원금 전달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AM, 대표 이상준 선교사)이 지난 3월 말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현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단체는 최근까지 총 8000만 원의 후원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강진은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의 단

층에서 발생했으며, 77 규모의 강진으로 5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AM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후원금은 선한목자교회의 5000만 원 기부를 포함해 의료기관, 이주민 공동

체, 개인 후원자들의 참여로 마련됐다.  
다른 구호단체들이 주로 수도 양곤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과 달리, AM은 피해가 집중된 네피도, 만달레이 등에서 직접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M 측은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인 구호

를 넘어서 장기적인 사역 기반 복원과 영적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은 현지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이어가고 있으며, 무너진 건물 대신 임시 공간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노형구 기자

올림픽공원이 바로 앞! 강동구청역 초역세권!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롯데월드타워, 한강, 서울아산병원, 잠실대교, 강남구청역, 성내천, 강동대로, 성내유수지체육공원, 광나루한강공원, 평화의 문,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

※본 홍보물의 CG 및 이미지 컷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ALACE 에스아이팰리스  
서울 도심에 전원 아파트!

강동구청역 도보 5분  
초·중·고·대학교 도보권  
아산병원 1.5km  
집앞은 올림픽공원

KYOBO 교보자산신탁 문 02.486.4388  
사공 에스테이트(주) (주)엔건설